

# 니치노부인답서 (어본존상모초)

## 오직 신심의 이자(二字)에 어본존의 대공력이

본문 어서 1244 쪽 8 행부터 11 행

이 어본존(御本尊)을 결코 타처(他處)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다만 우리 중생(衆生)이 법화경(法華經)을 수지(受持)하고 남묘호렌게교(南無妙法蓮華經)라고 봉창(奉唱)하는 흉중(胸中)의 육단(肉團)에 계시느니라. 이것을 구식심왕진여(九識心王眞如)의 도(都)라고 하느니라. 십계구족(十界具足)이라 함은 십계(十界)가 일계(一界)도 빠짐없이 일계에 있음이라. 이에 의해서 만다라(曼陀羅)라고 하며 만다라라고 함은 천축(天竺)의 이름으로서 여기서는 윤원구족(輪圓具足)이라고도 공덕취(功德聚)라고도 이름하느니라. 이 어본존도 다만 신심(信心)의 이자(二字)에 들어 있으니 이신득입(以信得入)이란 이것이니라.

### 어본존은 당신 흉중에

대성인께 하사받은 어본존이 말법에 처음으로 도현하신 미증유의 어본존이라는 것을 알고 니치노부인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대성인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히십니다. 즉 “이 어본존을 결코 다른 곳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 중생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남묘호렌게교라고 부르는 흉중의 육단에 계신다.” 라고. 대성인은, 어본존은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제목을 부르는 자기 가슴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안으로, ‘흉중의 육단’ 으로, 이 얼마나 극적인 전환입니까! 그 때나 지금이나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이 뿌리 깊습니다. ‘인간은 하찮으며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에 대해 궁극적인 존재, 영원한 가치는 자기 밖에 있다. 어딘가 멀리 있다.’ 는 사고방식과, 외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초월적(超越的)인 힘에 의존하는 신앙은, 이를테면 서로 이어진 것입니다.

니치렌불법은 이런 고정관념을 타파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범부(凡夫)의 몸에 입각해서 영원하고 궁극적인 법(法)이 나타난다는 생명의 진실을 봅니다. 원래 ‘불타(佛陀)’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기가 참으로 의처(依處)로 해야 하는 것 즉 ‘법’과 ‘진실한 자신’입니다. 무명(無明)에 덮여 깨닫지 못하던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의 보편적인 법과 그리고 그 법과 함께하는 자신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본존은 홍중의 육단에 계신다.”는 말씀의 본뜻을 배견하면 대성인이 도현하신 어본존은, 실은 자기 홍중의 어본존을 깨닫고 홍중의 어본존을 불러 나타내려는 어본존입니다. 자기 밖에 있는 어본존에게 창제할 때 완전히 똑같은 어본존이 자기 홍중에 있습니다. 자행화타를 위한 제목을 부르는 내 생명에 엄연히 나타납니다. 1278년 6월에 보내신 <니치노부인답서(촉루품등대의<囑累品等大意>)>에서 보탑품의 소재(所在)를 “니치노부인의 가슴 속·팔엽(八葉)의 심연화(心蓮華)안에 계신다고 니치렌은 보았느니라.”(어서 1249 쪽)고 말씀하셨습니다. 니치노부인은 이 어서에서 말씀하신 어본존이 ‘홍중의 육단’에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홍중의 육단’은 ‘가슴 속·팔엽의 심연화’입니다. 어본존이 있는 ‘홍중의 육단’을 달리 말하면 ‘구식심왕진여의 도’입니다. ‘구식’은 아마라식(阿摩羅識), 근본정식(根本淨識)이라고도 하며, 이것을 ‘심왕’으로 세웁니다. ‘진여’는 허망(虛妄)에서 벗어난 본연의 진실이고 마음의 ‘왕’이 있는 곳이므로 ‘홍중의 육단’, 우리의 생신인 육체가 ‘도’입니다. 법화경 행자이신 대성인이 이루신 부처의 생명, 진여와 일체(一體)인 대성인 자신의 생명 즉 “니치렌의 혼(魂)”을 어본존으로 나타냈습니다. 어본존은 ‘만다라’ 형식입니다. ‘만다라(曼陀羅)’는 범어 ‘Mandala’의 음역(音譯)입니다. ‘운원구족(輪圓具足)’과 공덕취(功德聚)로 번역합니다. ‘공덕취’ 즉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자재로 끌어내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니치렌대성인의 생명이 남묘호렌게교니까, 제자인 우리 생명도 똑같이 남묘호렌게교가 됩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심하면 니치렌대성인이 소유하신 근본의 힘이 우리 생명에 감응(感應)해서 솟아 나옵니다. 우리도 역시 영원진여(永遠眞如)의 자신으로 바뀝니다.”